

# 동아대, 취업·글로벌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올해 개교 72주년을 맞은 동아대학교는 수많은 정치인과 법조인, 경영인, 체육계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와 흐름을 함께해 왔다.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부울경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사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동아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개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전문성·인성·창의·도전·소통·글로벌을 주제로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권도와 유도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정해 인성 함양에 나서며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교양 체계도 새롭게 정립했다. 통섭, 융합이 중요시되면서 다전공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도전학기제를 통해 대외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학생 개인의 역량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인 리더스클럽, 프론티어즈, 리더스클럽 주니어가 대표적이다.

이들 동아리는 매년 1천600여 명의 회원을 배출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선배 중 1천200여 명이 멘토로 활동하며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600여 명은 매월 1만원을 평생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으로 내고 있다.

이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동아대는 '동아일보 청년드림 대학 평가'에서 우수청년 드림대학으로 선정됐다.

세부항목 중 취업기회 정보제공, 학생 조직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교육부 주관 1주기 대학기관평가에서는 부울경 대학 중 유일하게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부분 모범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취업자의 약 30%가 300대 대기업, 금융권, 공사·공단 등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취업의 질도 좋다.

특히 2017년 KB국민은행 하반기 공채에서는 합격자 9명을 배출해 전국 대학 중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동아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250여 개 기관과 협정을 맺고 복수학위 교환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천여 명의 재학생이 해외로 나간다.

특히 공대만 운영하던 아일랜드 IT Carlow 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올해부터는 경영대학에도 확대된다.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도 한다.

통합지원 서포터즈 'DAILY'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부터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해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국인 학생들에게는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 규모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교내장학금 50종, 교외장학금 130종 등 200개에 가까운 각종 장학금을 통해 연간 582억원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의 80%인 1만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





## 동아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12.29.(토) 09:00 ~ 2019.1.3.(목) 18:00 접수처 | [ent.donga.ac.kr](http://ent.donga.ac.kr)

입학상담 | 입학관리과 Tel. 051) 200-6302~4 입학사정관실 Tel. 051) 200-6305~7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